

오늘의 기사판

제 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막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제 8회 정신장애인 한마음 축제=오전 9시 광주시 구동 실내체육관. '나는 사람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5개구 만성정신장애인 1천200여명 참석 예정.
▲제 128회 강진다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방송인 김병조씨가 '명심보감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
▲제 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막식=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부대 행사로 오후 2시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디지털 미디어' 포럼과 '케이블 HD상영관'등 운영.
▲119 안전체험 대축제=오전 11시 순천 팔마체육관. 1만400명 학생(5천명)·소방 관계자(2천700명)·의용소방대(1천800명) 등 1만400여명 참석 예정. 27일까지.
▲2006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오후 2시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체

육관.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주)·(주)럭키산업 등 광주·전남 40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
▲친환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심포지엄=오후 1시30분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 이원교 전남대(양식생물 전공)교수·구자공 한양대(환경공학)교수·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등이 '2012 세계박람회 대비 여수연안 해양환경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
▲제 78회 순천사랑이카데미=오후 2시 순천문화회관 소극장. 이가령 경희대 교수가 '문화와 상상력,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54회 황토골 자치마당=오후 4시 무안군 습달문화예술회관.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이 '웃음은 만병통치약(웃음치료 행복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연.
(27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현청(호남대 총장)씨가 '세계속의 한국대학: 대학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강연.
▲제 11회 장성 백양단풍축제=오전 9시 장성군 백양사 광장 주무대. 단풍 등산대회 및 단풍 거리 건강달리기·백양 단풍 시낭송대회·단풍 염색전·장성 꽃감각기 대회·단풍 책갈피 만들기 등 공연·체험 행사. 29일까지.
▲제 409주년 해남명량대첩제=오전 10시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 29일까지.
▲2006 자활한마당=오전 10시 광주시 영주체육관. 자활후견기관 관계자 등 1천300여명 참석 예정. 오전 9시 장흥군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자활박람회 및 자활가족 운동회.
▲제 5회 세발낙지 큰잔치=오전 11시 무안군 망운면 성현리 조금나무 유원지. 낙지 잡기 대회·망둥이(운저리) 낙지 대회·갯벌 생태 체험·낙지 요리 경연대회 등 행사. 29일까지.

▲제 4회 창평 전통음식축제=오후 5시 담양군 창평면 창평 전통시장 일원. 마을별 전통음식 Best 경연대회·쌀엿 만들기·국밥 빨리먹기·한과 많이먹기 대회 등 행사. 29일까지.
▲제 29회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2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40회 정기연주회 '흥과 신명의 소리'=2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시립교향악단 제 22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27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어린이 북한 뮤지컬 '해님달님'=27일(금) 오전 10시30분, 11시30분, 낮 12시50분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주부인형극단 인형극 공연 '친구 친구 내친구', '먹이사슬'=27일(금) 오전 10시 광주시 향토문화센터 2층 공연장.
▲김광표 개인전=31일까지 광주시문화센터 갤러리.
▲주대조각각동문(백학) 회원전=11월1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남창회전=11월1일까지 상계갤러리.

뉴스퀴즈

35.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이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이 전직 대통령은 3공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거쳐 1976년부터 4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같은 해 제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이듬해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외교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최규하 ②윤보선 ③이승만 ④박정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④ 찬바람이 불면...

가을비가 흠뻑 내리는가 싶더니 가을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흠뻑 또 한 계절이 넘어가고 곧 겨울이 오기가 싶은 날씨가. 해가 짧아져 점점 일찍 어두워지고, 낮엔 포근하다가 밤낮으로 예기치 못한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 들고, 길 가다 길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오뎅국물이 푸근하게 느껴지기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런 계절은 외로운 싱글들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한다.
사실 가을이란 계절은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짙은 한 도막으로 스쳐갈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이 길게 늘어지면서 하늘하늘한 가을 블라우스를 입을 겨를도 없이, 바로 쌀쌀한 겨울날씨가 찾아오곤 한다.
어릴 때는 가을운동회, 가을소풍 등으로 인해 가을을 기다리고 준

비하는 마음이 컸기에 더욱 짙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가을을 알리는 눈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서늘한 바람을 피부로 느낄 사이도 없이 삭막한 사회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그리고 겨울이 오고 연말이 오면 또다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더 가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기다리는 마음이 크면 늦게 오듯 느껴지는 것처럼 늦게 왔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빨리 온다는 것쯤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싱글들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제일 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싱글들은 조금은 다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외로울까'라는 한숨으로 소중한 젊은 날들을 날들 날들 보내지 말고 추운 계절로 가는 이 즈음의 자국을 오히려 적극 활용해 도와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도와이란 한마디로 '연인 찾기'라 할 수 있다.
연인을 찾기 위해 달려보자. 날씨가 춥더라도 힘껏 달리면 온몸에서 열이 나며 체온이 오르듯이 마음이 추울 때 또한 한없이 달려보자.
마음이 불이 붙을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끝인점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며, 지나치면 다시 돌아가 끝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서 서서히 마음에 불을 피울 준비를 해보자. 늦가을 찬바람쯤은 가뭄이 이겨내기에 가장 좋은 자재가 바로 이 달리기 자세가 아닐까 한다.

연인을 찾기 위해 달려라

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절이 바로 겨울이다. 찬바람 때문에 옆구리가 서늘한 것도 큰 이유이지만 하얗게 눈 덮인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아름답게 느낄 짝이 없다는 것, 짝이 없는 세상 속에 웬지 나도 슬러는 연말과 크리스마스에 함께 신나는 일을 계획할 짝이 없다는 것 등 실로 쓸쓸해지는 싱글들의 마음 속에 더욱 불을 지르는 아픔이다. 차라리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사람도 적지 않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권선트>

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pieces (1-13) on a grid.

Go board game advertisement for '제15회 광일배' (15th Kwangil Cup) with rules and contact info for SK Telecom and KRA.

Baduk (Go) news article titled '바둑 소식' (Baduk News) discussing a match between Onoson and Mokjinseok.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Fate's Today's Fortune)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굿모닝 잉글리쉬 <761> 오하이오 니혼고 <761> 니하오 쫑구워 <479> 한자 이야기 <379>

English lesson 'a sob story'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A: Did you read her new novel? B: Yes, I did. A: How did you like it? B: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t was nothing but a sob story.

Japanese lesson '初耳(はつみみ)ですね'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A: 'オタフクス'を知っていますか? B: はあ? 'オタフクス'ですか? 初耳(はつみみ)ですね.

Chinese lesson '不得不...'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A: 心算怎么算不了? B: 他太难了, 不得不佩服他.

Chinese lesson '無影塔 (무영탑)' with text: 无影塔(無影塔)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의미이다. 탑(塔)은 절의 건축(建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속물로 하나의 본전(本殿)에 두개를 두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